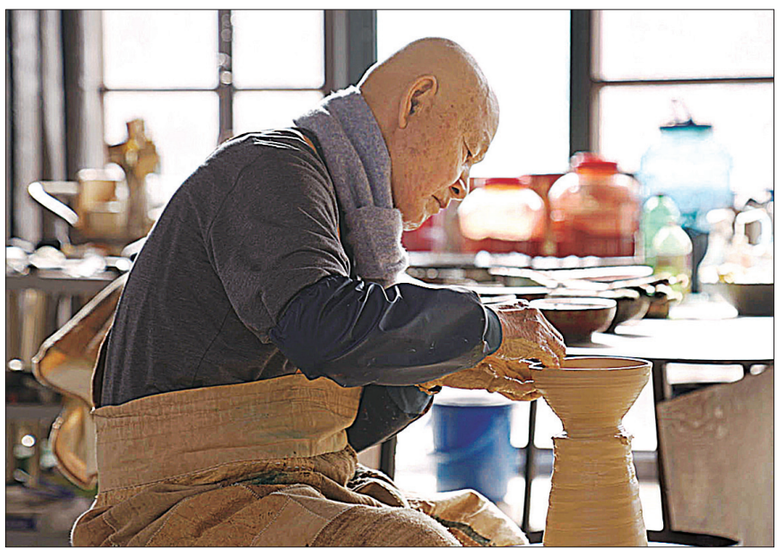
성파 종정예하 40년 '禪藝'를 망라하다

9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서
'선예 특별전 COSMOS' 개최

3m 옻칠 조각, 수중설치회화
금니사경 등 작품 120점 선봬
연계 학술세미나, 다도체험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종단을 이끄는 정신적 지도자이며 불교문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장르의 화업을 펼친 예술가이기도 하다. 사진제공=예술의 전당



태초, 삼베에 옻칠, 2024, 가변설치_1. 사진제공=예술의 전당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종단의 신성이자 한국불교 장자종단 조계종의 종통을 승계하는 최고 권위를 가진 정신적 지도자이며 통도사 주지와 종단 원로의원을 역임한 뒤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소임을 맡아 수좌들을 제접하는 선지식이다. 하지만, 성파 대종사에게는 또 다른 이면이 있다. 바로, '불교문화' 바탕으로 서예, 민화, 도자 등 다양한 장르의 화업(畫業)을 펼치는 예술가이기도 하다. 대종사가 40여 년 동안 쌓아올린 화업의 정수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예술의전당(사장 장형준)은 오는 9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성파 선예(禪藝) 특별전- 코스모스(COSMOS)'를 개최한다.

불교에서 선(禪)수행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모든 예술을 의미하는 '선예(禪藝)'가 전시 주제로 명명된 만큼 이번 특별전은 성파 대종사의 40여 년간 보여준 독창적 예술세계가 담겨있다. 실제 이번 전시회에서 성파 대종사는 1980년대에 선보였던 금니사경과 최신작은 물론 옻칠 회화와 설치 작품을 중심으로 평생 화업을 총망라하는 120여 점을 선보인다.

성파 대종사의 선예에 있어 '재료에 대한 연구'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대종사는 전통 한지 제작부터 안료와 염료의 재배 및 가공에 이르기까지 작품의 물감과 바탕이 되는 재료들을 직접 다뤘다.

특히 '옻'이라는 물성의 활용한 대종사의 작품은 회화, 도자, 섬유, 조각 등에서 독자적인 옻 예술 장르를 만들어 냈다. 이번 전시는 작가 성파 대종사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한국적 재료 탐구를 기반으로,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예술 작품들이 전시된다. 실제 전시장 내부에는 3m 높이의 옻칠 조각, 수중 설치 회화 등 시선을 사로잡는 대형작이 소개되며, 성파 대종사의 작업 과정과 통도사 장경각 내 수중 암각화 작품을 담은 영상이 함께 상영돼 주목할 만하다.

전시는 △태초(太初) △유동(流動) △꿈(夢) △조물(造物) △궤적(軌跡) △물속의 달 등 총 6개 섹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섹션인 '태초'에서는 우주의 시작을 상징하는 암흑물질과 태초의 에너지를 표현한 작품으로 전시의 시작을 알린다. 검은 기둥은 우주의 근원을 탐구하는 상징적 오브제로, 초월적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시각화했다.

두 번째 섹션 '유동'은 물과 바람 등의 유동성과 에너지의 옻칠로 형상화한 작품이 주를 이룬다. 서양의 마블링 기법과는 달리 물질 너머의 에너지와 기운을 시각적으로 풀어냈다.

세 번째 섹션 '꿈'에서는 대종사의 초현실 세계와 마주한다. 추상과 구상이 혼합된 인간, 동물, 기하학적 형태들이 혼재하며 무의식 속에서 펼쳐지는 꿈의 세계를 탐험한다.

'조물' 섹션에서는 성파 대종사가 도자와 옻칠을 결합하고 공예와 미술을 넘나들며 '칠예 도자' 장르를 개척한 과정을 보여준다.

'궤적'은 성파 대종사의 생애와 예술적 발전 과정을 추적하는 섹션으로, 대종사가 걸어온 예술적 궤적을 시기별로 나누어 보여준다. 유교의 시서화를 시작으로 불교의 사경과 도자, 그리고 추상적인 옻칠 예술로 확장되는 예술 여정을 만날 수 있다.

마지막 섹션인 '물속의 달'에서는 물질과 정신, 실재와 비실재의 경계를 초월하는 작품들이 전시된다. 상(相)에 대한 집착을 떠나 옻의 물성이 성파의 수행과 철학을 만나 조형 언어로 승화되는 과정을 감상할 수 있다.

전시와 연계되는 프로그램들도 눈길을 끈다. 10월 10일 오후 1시 30분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4층 컨퍼런스홀에서 '성파의 예술세계'를 주제로 열리는 학술대회에서는 심은록(미술평론가), 이동국(경기도박물관장), 이영준(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인범(미술평론가), 정종미(한국화가, 전 고려대학교 교수), 마엘 벨렉(세르누치미술관 큐레이터), 버지니아 문(LA 카운티미술관 큐레이터) 등이 참여해 다각도의 시선에서 대종사의 예술관을 논한다.

관객참여형 프로그램 기획된 '다도 프로그램'은 전시 기간 중 한가람디자인미술관 로비 내 특별 마련된 다도 공간에서 진행된다. 네이버 예약으로 선착순 운영되며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1668-1352

"기후위기 극복하자" 환경보살들의 호소

9월 7일 '기후정의행진'
불교계단체 300여명 참여



"기후재난 못 살겠다. 안전한 삶 보장하라!"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에 불교계가 동참해 힘을 보탰다.

불교계 단체인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 스님), 불교기후행동(상임대표 일문 스님),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 등을 비롯한 불자 300여 명은 9월 7일 서울 강남대로에서 열린 '907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했다. 참여 단체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사진〉

행진은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를 주제로 진행됐다. 전국비구니회 회장 광용 스님은 발원문을 통해 환경보살이 돼 정토세상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원경 스님은 성명서에서 "'삼계가 불타고 있다'는 〈법화경〉 말씀처럼 우리가 사는 지구가 불타고 있는데 눈 감고 있을 수 없다"며 "부처님의 생명존중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자들은 기후위기의 시대에 뭇생명의 안락을 위해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종교계 탈핵기도에서 울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천도 스님은 기후정의행진을 통해 이기적 욕망 없는 세상이 구현되길 발원했다.

이날 불교환경연대는 '환경5계'를 통해 기후위기시대 삶의 자세를 제안했다.

김가령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9월 6일 추석을 앞두고 흑석복지관에서 자비나눔 봉사를 베풀었다.

"어르신들 건강한 추석 보내세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묘장 스님), 서울 달마사(주지 일행 스님)는 9월 6일 흑석종합사회복지관(관장 최승희)에서 '추석맞이 자비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진우 스님은 흑석동 지역 어르신 130여 명이 훈훈한 추석명절 보내기를 바라며 추석 선물을 전하고 대중공양 봉사에 참여했다.

이날 식사는 어르신들의 몸보신을 위한 찰밥, 갈비탕, 동태전, 콩나물냉채, 섞박지, 송편, 식혜 등으로 구성됐다.

김가령 기자

관음종 면면 조명 학술심포지엄 열린다

9월 27일 종로 낙산 묘각사서
개산조 태허 조사 탄신120주년
종단 창종 60주년 즈음 기념해

관음종(총무원장 법명 스님)이 개산조 태허 조사 탄신 120주년과 창종 60년을 기념해 다례재와 학술심포지엄을 연다.

관음종은 오는 9월 27일 오후 1시 총본산 낙산 묘각사에서 '개산조 태허 조사 탄신 120주년 다례재 및 창종 60년에 즈음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경내 원통보전에서 열리는 태허 조사 탄신 120주년 다례재는 총무부장 홍경 스님의 사회와 예경실장 법관 스님의 집전으로 봉행된다.

다례재 이후에는 '관음종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이 대불보전에서 열린다.

이날 학술심포지엄에서는 허남결 동국대 교수의 기조강연을 비롯해 관음종의 종헌과 역사, 사회실천사업 등을 조명하는 연구논문들이 발표된다.

조기룡 동국대 교수는 '관음종의 종헌 변천 연구'를, 장미란 동국대 교수는 '탈종교화시대, 관음종의 전지구적 공생 행보'를, 문현공 동국대 교수는 '현대 한국불교 관음신앙 현황과 미래방향'을 각각 발표한다.

또한, 이명호 동국대 교수는 '태허 스님의 사상과 관음종의 기후위기 극복 노력'을 이성운 동방문화대학원대학 교수는 '관음종 입종과 그 실현'을 대중에게 전한다. 종단사 관련 논문으로는 총무부장 홍경 스님이 '관음종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자연의 맛 나눔의 마음 Taste of Nature Heart of Sharing

2024년 제15차 봉녕사 사찰음식대향연

사찰의 자연발효음식

2024.10.4(금)~10.5(토)





2024년 제15차 봉녕사 사찰음식대향연 일정표

시 간	10월 4일(금)	10월 5일(토)
07:00~09:00	사찰음식 전시 및 경연대회 세팅	
09:00~09:30	사찰음식 경연대회 시식 및 평가 09:00~10:10 육화당	
09:30~10:00		금비라 졸업식 09:30~10:00 야외무대
10:00~10:30	비빔밥 퍼포먼스 10:20~11:00 대적광전 앞	차명상 ① 10:00~10:30 야외무대
10:30~11:00		차명상 ② 10:30~11:00 야외무대
11:00~11:30	육법공양 11:00~11:30 금탑 앞	육법공양 11:00~11:30 금탑 앞
11:30~12:00	사찰음식 실습특강(성견스님)	사찰음식 실습특강 (법송스님)
12:00~12:30	11:30~12:20 야외무대	11:30~12:20 야외무대
12:30~13:00	차명상 ① 12:30~13:00 야외무대	탁발순례 12:30~13:10 도량 내
13:00~13:30	차명상 ② 13:00~13:30 야외무대	무아차회 13:10~14:10 금탑 앞
13:30~14:00	탁발순례 13:40~14:20 도량 내	
14:00~14:30		시상식 준비 · 공연 리허설
14:30~15:00	무아차회 14:30~15:30 금탑 앞	14:10~15:00 야외무대
15:00~15:30		1부 : 사찰음식 경연대회 시상식
15:30~16:00		2부 : 비천무 공연 / 우담화합창단 공연
16:00~16:30		15:00~16:30 야외무대
16:30~17:00	판매 종료	행사 · 판매 종료

사찰의 발효음식, 김치만들기 체험 : 10월 4~5일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1일 6회)

주최 | 대한불교 조계종 봉녕사 | 주관 | 봉녕사 사찰음식대향연 운영위원회 | 후원 | 경기도 수원특례시